

## 화요글발



서규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 좋은 약재는 위급할 때 재탕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전시에서 얻은 과학기술 경험들이 평화 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부시 국장은 저명한 과학자로 위원회를 만들고 과학과 정부의 관계, 기초연구, 과학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한 국립연구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1945년 7월 '과학 그 끝없는 프런티어(Science : the endless frontier)'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2차 세계대전 후 정부주도의 R&D전략 추진 등 향후 75년간 국방, 거대과학 등 공급 위주 과학기술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반면 저성장에 시달리던 유럽(EU집행위원회)은 과학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던 시대상에 따라 1997년 바네바 부시의 보고서 이름을 패러디해 194쪽의 '사회:

그 끝없는 프런티어' 책자를 펴냈다.

21세기 과학기술 혁신정책은 이제 공급 위주 정책이 아니라 '사회'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당시 유럽은 저성장, 실업, 고령화에 시달린 데다 과학기술에 비해 뒤떨어진 사회 혁신능력, 환경, 교통분야 개선을 원하는 시민요구가 빗발쳤다.

그리고 미국은 바네바 부시가 작성한 보고서 75주년을 맞아 강력한 약재를 준비했다.

2020년 5월 민주·공화 의원들이 '끝없는 프런티어법' 제정을 제안했고, 국립연구재단에 기술본부 신설, 5년간 100조원 투자 등이 그 골자였다.

이 법안이 기초가 되어 2021년 미국 혁신경쟁법, 22년 미국경쟁법 '반도체법'의 수정법안이 만들어졌다.

이 정책들은 7개 분야로 구체화 되었는데

결국 보고서 발간 75주년에 부시의 약재를 꺼내서 새로운 과학기술환경에 맞춰 새로운 처방을 만들어낸 것이다.

미국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의 성장, 반도체 공급망 위기 해소, 새로운 초격차 전략이 필요한 시기에 부시가 만들어놓은 약재를 재탕해서 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했는가? 75년 전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했기 때문일 것이다.

좋은 약재와 감초를 찾아 꺼내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린 미국의 기술패권 정책을 부러워만 할 수 없다.

사적 진보와 문명사에서 과학과 휴머니즘은 맞닿아 있다는 조지 사튼(Sarton)의 경구를 새기면서, 우리도 탄소중립과 지역 혁신, 디지털 전환과 의료복지, 국방안보 등 국가미래를 위해 과학기술 고도화 정책이 빠른 시일 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

한약을 달이는 냄새는 그윽하고 향기롭다. 재탕까지 하고 나온 감초맛은 씁쓸하면서도 달착지근하다.

나는 이 좋은 약재. 거기에 들어간 감초 같은 것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구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바네바 부시의 보고서라고 생각한다.

지금으로부터 80여년 전 나온 40쪽 짜리 보고서는 1944년 11월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시과학연구개발국 부시 국장에게